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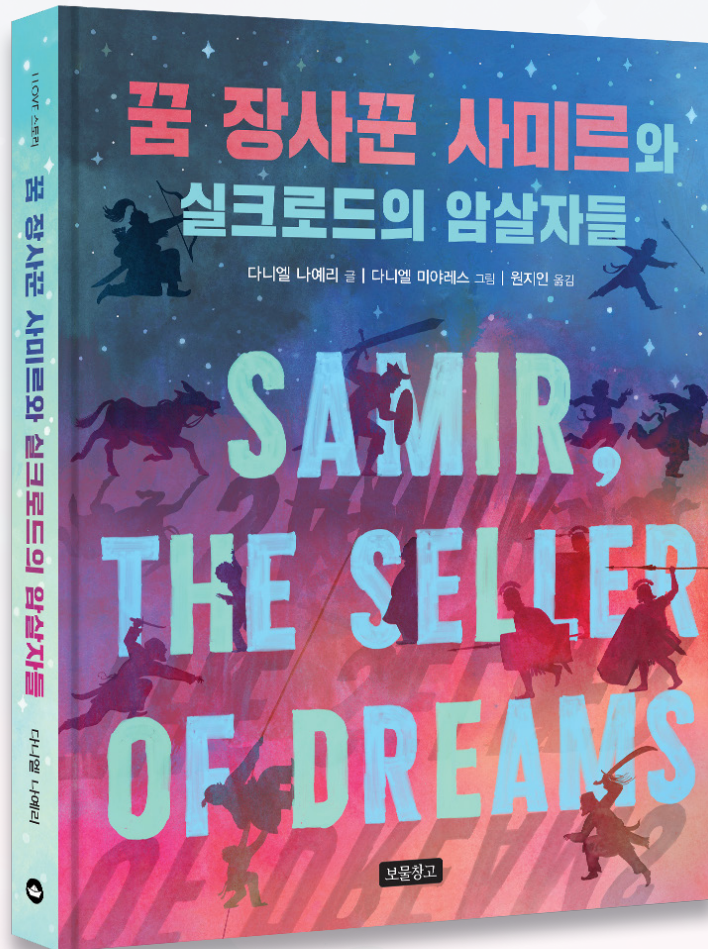
|어린이, 청소년

〈꿈 장사꾼 사미르와 실크로드의 암살자들〉

다니엘 나예리 글 | 다니엘 미야레스 그림 | 원지인 옮김 | 보물창고 펴냄

★ 2024 〈뉴베리 아너상〉 수상작 ★

〈월스트리트 저널〉〈북리스트〉〈스쿨 라이브러리 저널〉〈커커스 리뷰〉〈에반스톤공립도서관〉
〈시카고공립도서관〉〈내셔널 퍼블릭 라디오〉 선정 ‘올해 최고의 책’



『꿈 장사꾼 사미르와 실크로드의 암살자들』 속 11세기 실크로드 위에는 사기꾼을 뛰어넘는 입담으로 물건을 사고파는 장사꾼 ‘사미르’가 있다. 스스로를 ‘꿈 장사꾼’이라고 소개하는 사미르의 당나귀 등에 값나가는 향신료·향수·모피 대신 가득 실려 있는 꿈들과 사기꾼 뺨치는 그의 허풍과 말솜씨가 그다지 믿음직스럽지는 않지만, 사미르의 이야기와 그들을 둘러싼 모험담은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만 빠져들게 되는 묘한 매력이 있다. 그 속에는 실크로드의 다양한 문화와 삶이 녹아 있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 철학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통해 대대로 이어진 삶의 방식과 지혜가 현재의 삶의 근본을 이루는 것처럼, 『꿈 장사꾼 사미르와 실크로드의 암살자들』이 지닌 놀라운 ‘이야기의 힘’은 독자들이 저마다의 삶의 방식과 세계관을 새롭게 세우거나 다시 한 번 다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

읽기 전 활동

1. '실크로드'는 어떤 곳인지 인터넷이나 책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찾아보세요.
2. '꿈 장사꾼'은 어떤 사람일지 상상해서 써 보세요.
3. 2번을 바탕으로 사미르의 성격과 특징을 예상해 보세요.
4. 어린 시절 또는 자라오면서 전해 들었던 이야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읽기 중 활동

1. '나'와 '사미르'와의 첫 만남이 이루어진 계기가 된 사건은 무엇인가요?
2. 미르가 '나'를 받아 주지 않고 사제들에게 돌려보냈다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됐을지 생각해 보고 이어지는 이야기를 써 보세요.
3. 내가 가장 좋아하고 아끼는 친구(이성 친구도 무관함.)가 마라처럼 나를 실망시키거나 배신했다면 나는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세요.



제3장 값비싼 사랑의 본질



그때까지 내가 파악한 것은 이렇다. 타르판 40마리, 낙타 20마리, 짐 나르는 노새 20마리로 이루어진 카라반은 모두 물건을 가득 싣고 중국 서쪽 끝에 있는 무루판을 거쳐 카슈가르^{*)}로 가기로 돼 있었다. 알다시피, 타클라마칸 사막^{**)}을 통과하는 위험한 대장정이었다. 이들은 더 먼 동쪽에서 구한 물품들을 가지고 쿠물^{***)} 관문 근처 여인가에서 모였다. 바로 여기가 그들이 우연히 사원을 발견하고 그런 상황에 있던 나를 발견한 곳이다.

일단 무루판에 도착하면 물건들, 짐 나르는 동물들, 상인들, 그리고 함께 이동하는 사람들까지 카라반은 그 크기가 세 배나 늘어날 것이다.

* 카슈가르 : 중국 신장 웨이우얼 자치구 서쪽에 있는 도시로 도서 교통로의 요지였다.
** 타클라마칸 사막 : 타림 분지 가운데에 있는 사막으로 서쪽은 사구로, 동쪽은 자갈로 이루어져 있다. '불모지', '버려진 곳'이라는 뜻으로 환경이 가혹하다.
*** 쿠물 : 하미, 중국 신장 웨이우얼 자치구 동쪽에 있는 오아시스 도시.

4. 베두인족의 라티프처럼 사미르의 허풍에 속아 억울하게 거래를 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나는 사미르에게 어떤 방법으로 되갚아 줄 것인지 생각해 보고 서로 이야기 나눠 보세요.

읽은 후 활동

1. 책 속에서 기억하고 싶은 구절이 있었다면, 찾아서 따라 써 보세요.
2. 내가 만약 나를 뒤쫓는 책 속 암살자들 중 한 부류와 마주친다면 어떻게 대처할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암살자와 마주쳤는지, 그들을 어떻게 따돌릴 것인지 나만의 작전과 계획을 세워 이야기 나눠 보세요.
3. 지금 내가 가장 갖고 싶은 물건은 무엇인가요? ‘사미르’의 방식으로 거래해야 한다면 나는 어떤 이야기를 꾸며 낼지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4.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나’와 ‘사미르’와의 관계도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가족’의 의미는 무엇인지 서로의 생각을 나누어 보세요.



제6장 바이킹 광전사 등장



몸집이 작아진 우리 키라만은 방금 이발소 의자에 앉은 늙은 문지기에게 사과하며 쿠엘리 열문으로 서둘러 들어갔다. 나는 짝다 만 머리로 얼굴을 찌푸린 문지기를 보며 웃지 않으려고 애썼다.

늦은 저녁이었다. 저녁 식사와 밥 기도 전에 서둘러서 장사를 해야 했다. 요새 새벽 바깥의 임시 시장과 달리, 부유한 도시 중심부 쿠엘리의 그랜드 바자르에는 돌길과 가로등이 있었고 무엇보다 열성적인 쇼핑객들이 있었다.

쿠엘리 극장은 근처 수도인 투루판에서 유명했고, 거기에서 나온 수일리로 소그드 상감, 중국 치터 연주자, 무척인 무용수 같은 다른 예술도 함께 들어왔다. 투루판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길고 어리석은 상인들은 모두 극동에서 온 물건들을 가득 가지고 쿠엘리의 바자르에 들렀

*그랜드 바자르: 쿠모가 큰 시장가.

*극동: 유럽의 관점에서 중국, 일본, 태반 등 동아시아를 이룸.